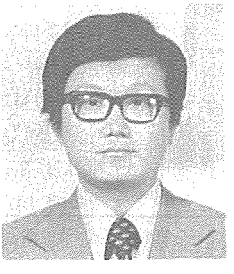
1985년도

# 대한기생충학회 춘계학술 대회 참관기

〈사진 : 필자가 발표하고 있는 장면〉

## "새로운 기생충에 관한 연구가 늘고나고 있다"



채 종 일

4月27日. 날씨도 매우 화창한 제주도의 토요일이었다. 그 전날 안개와 구름도 많이끼고 제주도전역에 내린 봄비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여 회의장까지 도착하는데에 무진 애를 쓰신 분들도 많았다. 그러나 하룻밤을 제주도에서 보내고 난 다음날, 바로 학회당일은 제주도의 싱그러운 체취가 물씬 풍기는 맑고, 상쾌한 날이었다.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김승호교수의 배려로 마련된 회의장(농과 대학 시청각교육실)까지 마이크

로버스를타고 가는 도중에는 길가에 화사한「유채화」가 회원들의 마음을 더욱 흐뭇하고 풍요롭게 해준 것 같다. 회의장에 도착하여 간단한 등록을 마치자 지난 가을학회후 6개월만에 만난 회원들 사이에는 따스한 인사가 오가고 서서히 학회의 본모임이 시작되었다.

이화여자대학의 민홍기 본학회 회장의 간단한(?) 인사가 끝나고 이어 제주대학쪽의 인사가 있었으며 곧바로 연제발표에 들어갔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장비를 동원하는등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제주대학 관계교수님들의 도움 덕택에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으나 젊은 회원들의 발빠른 최종점검과 진행보조가 눈에 띄었다.

연 는 모두 14편으로 총 2시간 50분동안 발표되었다. 이들 연제는 다섯분의 좌장(민홍기교수, 서병설교수, 소진탁교수, 최동익교수, 최원영교수) 진행하에 휴식없이 연속해서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발표시간 준수에 대하여 학술부에서 특히 간곡한 촉구가 있어온 때문인지 대부분의 연자가 시간을 준수하였고 진행이 매우 여유가 있으면서도 원활하였다.

연제는 기생충 종류별로 볼 때 원충류 2편, 선충류 4편, 흡충류 7편및 곤충 1편으로 흡충류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함을 의미하였다. 또, 이들을 연구방법 및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최신기술을 이용한 면역학적 연구 3편, 역학적 특성분석 1편, 생활사 및 생물학적 특성연구 3편, 희귀기생충의 인체기생례보고 3편, 역학적 상황조사 2편, 병리학적 연구 1편, 구충제의 효과연구 1편으로 나눌 수 있었다. 특히 과거에 많던 회충, 구충, 간흡충, 폐흡충, 조충 등에 관한 연구가 줄어든 반면 Echinostoma, Heterophyes 등 새로운 기생충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연제별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제 1 : Hybridoma에 의해 분비되는 톡소프라스마 항체에 관한 연구(연세의대). 그야말로 최신기술을 도입한 연구이다. 톡소프라스마는 인체에서 안과질환, 신경질환 등을 일으키는 원충류인데 이 질환의 진단이 실제적으로 혈청학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유용한 진단법이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이다.

연제 2 : 톡소프라스마 접종동물에 있어서 간접 라텍스 응집항체가의 변동과 저항성(카톨릭의대). 연제 1과 마찬가지로 톡소프라스마의 혈청학적 진단법에 관한 연구인데 연제 1과는 달리 라텍스를 이용하여 경시적 항체가를 조사한 것이다.

연제 3 : Capillaria hepatica 감염 흰쥐에 있어서 충란추출항원을 이용한 효소면역 측정법에 관한 연구(고려의대). 이 연제도 면역진단에 관한 것인데 흰쥐의 간에 기생하는 간모충의 충란에서 항원을 추출하였고 효소면역법(ELISA)을 이용하여 감염흰쥐의 항체가를 조사한 것이다. 항체가의 상승이 일시적이며 감염 13주부터는 음성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연제 4 : 회충 유행지역에 있어서 감염율과 감염충체수의 상관관계(서울의대). 우리나라 농촌의 회충감염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생물학적 법칙(?)하에서 결정되어 일어나고 있음을 어떤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연제5 : 요충 초기발육단계에 대한 구충제의 효과(중앙의대).요충에 듣는 구충제를 사용하여 어떤 집단을 치료하면 치료후 20-30일에 충란양성율이 다시 상승 된다. 이것이 치료후 재감염에 의한 것이냐 또는 구충제의 작용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 요충이 구충되지 않기 때문이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 연구는 요충의 인체내 수명이 40일 이상이며 감염후 16일이 안된 어린 요충은 약제에 저항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체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연제6 : 요충자충의 길이별 충란수(중앙의대). 요충 암컷이 자궁내에 몇 개의 충란을 가지고 있는냐 하는 것인데 요충의 길이, 즉 성장에 따라 다르며 가장 성장하면 약 13,000개를 가진다고 하였다.

연제7 : *Echinostoma hortense* 인체감염 2례 및 제2중간숙주 조사(연세원주의대)최근(1947년 이후) 일본에서 미꾸리의 회를 먹은 환자에서 20명 이상이 이 흡충에 감염되어 의학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례가 보고되었고, 이 연구에서 다시 2례를 추가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감염자는 미꾸리를 날로 먹은 일이 없다고 하므로 환자가 먹었다는 민물고기(버들치)를 조사하였더니 바로 이것이 감염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다.

연제8 : 경북 성주산 담수패류의 *Echinostoma* 유충 감염상태( 국군중앙의무시험소). 연제7에서와 같은 *Echinostoma* 의 제1중간숙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바 *Lymnaea Pervia*라는 담수패류가 세르카리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연제9 : 중동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Heteroplys heterophyes*, *H·dispar* 및 *H·aequalis* 의 인체감염(서울의대). 중동지역 파견 근로자의 대변검사에서24.8%가 이형흡충류 충란 양성임을 알고 그 흡충의 정확한 종을 알고자 하던 중 2명을 Praziquantel로 투여하고 하제를 써서 충체를 배출시킨 뒤 충체를 찾아낸 바 우리나라에는 없는 위의 3가지 종류를 흡충임을 알았고 이 중 *H·heterophyes*를 제외한 두가지는 세계적으로도 인체감염의 보고가 없었던 종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연제10 : 남대천 은어에서의 요꼬가와 흡충 피낭유충의 기생양상(경북의대). 경북 울진군 남대천에 서식하는 은어의 요꼬가와흡충 감염상황을 조사한 바 감염율은 100%이나 감염량은 비교적 낮았다 한다.

연제11 : 한국의 요꼬가와흡충에 관한 연구-동남부지방산 은어의 지리적 분포 및 피낭유충 감염상태-(중앙문리대 및 서울의대). 우리나라 동남부지방 총 70개 하천에 서식하는 은어의 요꼬가와흡충 감염을 조사한 것으로 일의 분량이 매우 방대한 것이었다. 이들 자료를 도별로 집계한 바 전라북도 및 제주도산 은어는 100%, 전라남도94.6%, 경상남도 67.6%, 경상북도 50.9%, 강원도 46.4%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제12 : 간흡충 감염 백서담관의 병리학적 변화(이화의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간흡충증에 관한 꾸준한 연구이며 본 학술대회에서 유일한 간흡충 연구이었다. 간흡충 감염시에 생기는 담관의 병변은 담관암으로 진행되는 직접적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담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생각되며 발암제 등이 관련되어야 암이 발생될 것이라 하였다.

연제13 : 인체기생 간질(*Fasciola* sp.)의 1례(부산의대). 소를 비롯한 가축의 담도에 기생하는 흡충이 드물게 인체에서도 발견되는데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보고되는 인체기생례이다. 연자의 사정으로 학회석상에서 구연되지 못하였다.

연제14 : 경북지역에서의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출현 소장(계명의대 및 일본NIH). 경북지역에서 일본뇌염의 매개모기인 *Culex tritaeniorhynchus*의 출현시기를 조사하였는데 6月중순에 처음 나타나고, 8월하순-9월초순에 최고치를 보이며, 10월중순에는 채집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학술발표회가 끝난 후 제주대학 총장님이 준비해주신 점심을 끝내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만 1일동안 제주도 관광이 있었다. 관광을 주선해 주시고 줄곧 해설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승호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4월27일 저녁식사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제주시 의사회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번 봄 학회는 학술적 모임과 회원의 친목도모, 관광이 모두 잘 이루어져 삼위일체가 된 인상깊은 학회였음을 부언하고 싶다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실〉